

항공기 사고 유가족이 원활하게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1.3.(금) 뉴시스, 참사로 가족 잃었는데... 장례휴가 퇴짜, 유족 가슴에 대못

2. 설명 내용

□ 1.1.~2. 장례 등을 위해 휴가 사용을 희망한 유가족 106명에 대해 소속 사업장에 휴가 사용 지도 공문 발송(본부) 및 유선으로 개별 안내(지방관서)한 결과,

○ 현재까지 소속 사업장(연락 두절 사업장 3개소를 제외)에서 휴가 부여를 거부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,

－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가·특별휴가·연차휴가 부여하고 있거나, 유가족이 휴가 신청시 부여할 예정이며, 필요한 경우 추가 휴가도 검토 중으로 파악됨

□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휴가 사용 희망을 신청한 유가족 130명에 대해서도 현재 소속 사업장에 휴가 사용 지도 공문 발송을 완료하고 지방 노동관서에서 유선으로 개별 안내를 병행 중임

□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민원이 제기된 바 없으나, 앞으로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음

담당 부서	노동개혁정책관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임금근로시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한창훈 (044-202-7543)